

'97한국건축문화대상 수상작

Korean Architecture Awards '97

국내 최대의 건축작품경연대회인 「'97한국건축문화대상」의 심사결과가 발표돼 지난 9월8일 서울시립미술관내 서울600년기념관에서 각 부문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이 열린데 이어 9월19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수상작전시회가 개최됐다.

올해 영예의 대상은 재미 건축가인 김태수씨와 (주)창조건축이 공동설계한 「LG화학 대덕연구소」가 차지했으며, 대상수상자중 건축가 김태수씨에게는 대통령표창이 수여됐다. 또한 본상에는 (주)간·삼건축(대표 지순)의 코오롱 타워(경기도 과천시)를 비롯해 6점이 선정됐고, 입선작은 (주)정림건축(대표 김정철)의 한국가스공사사옥의 15점이 뽑혔다. 한국건축문화대상은 크게 준공건축물부문과 계획건축물부문 등 두 부문에 걸쳐 출품작을 공모하였으며 이중 준공건축물부문은 다시 주거와 비주거 분야로 구분돼 당선작이 결정됐다.

준공건축물 부문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지어진 전국의 건축물중 예술성과 기능성이 뛰어난 작품들을 건축가들이 직접 응모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건축문화대상은 최근 지어진 건축물들중 작품성이 뛰어나다고 평가되는 건축물의 대부분이 모여 경쟁을 벌이는 건축작품 경연대회다. 준공건축물부문의 올해 총 응모작은 67점이었다. 이중 주거부문은 18점이었는데 지난해 28점보다 10점이 줄었다. 그러나 비주거부문은 47점으로 2점이 늘었다. 이중 입선이상에 당선된 작품은 모두 23점.

계획건축물부문은 건축전공 학생, 설계사무소 종사자(건축사 제외)등 아마추어 건축가들이 일정한 주제하에 「건축디자인 및 설계개념 소화능력」등을 겨루는 것이다. 올해 주제는 「도시의 여백」이었는데 총 응모작은 3백3점으로 작년보다 67점이 늘었다. 계획건축물부문 금상은 「쵸」이란 제목의 작품을 출품한 김연주씨(25·세창건축 근무)와 박영준씨(홍익대 건축과 4년)가 차지했으며 은상 2점과 동상 5점, 입선 28점 등 모두 36점이 상을 수여받았다. <편집자 주>



■ 개요

▷ 작품접수현황(67점)

- 접수마감 : '97. 8. 2(토)
- 주거부문 : 18점, 비주거부문 : 47점

▷ 심사일자

- 1차 심사(사전접심사) : '97. 8. 8
- 2차 심사(현장심사) : '97. 8. 11~12

▷ 심사위원(가나다 순)

- 권용우(성신여대 지리학과 교수, 경실련 운영위원장)
- 김무언(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 건축사사무소 하나그룹)
- 박현령(시인, 추계예대 강사)
- 이동배(인하대 건축과 교수)
- 정 훈(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 심사평

총평 / 한창진(심사위원장)

올해도 주거부문, 비주거부문을 합해서 63점의 작품이 접수됐다. 하나같이 나름대로 노력한 흔적이 엿보여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웠다. 다만 비교 우위 원칙으로 자르고 골라내고 해서 23점의 입선작을 간추렸다. 이를 놓고 대상과 각 부문 3점씩의 본상을 골랐다.

심사의 주안점은 ▲사회적 공헌도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위한 기여도 ▲미래지향성 ▲새로운 시도 ▲환경과의 친화성 ▲우리 문화에의 친근성 등에 두었다. 두드러진 현상은 아파트·빌라 등 공동주택의 경우 일상적인 평면·외관으로는 경쟁대상이 되지 못하고 배치나 장소성, 참신성이 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비주거건축에서 우열을 가리는데는 어려움이 많았다. 모두 본상 수상김인데 그중 몇 개를 고르다보니 역대 수상작과 비슷한 작품, 지나치게 독특한 실험적 건축물 등은 상에서 밀려나 는 「억울함」을 겪어야 했다.

본상에 선정되지는 않았으나 아까운 작품들은 이렇다. 이화삼 성교육문화관은 학교건축물도 질적인 모색이 필요하다는 측면을 보여 주었다. 명휘원장애자재활센터는 적은 비용으로 그나마 높은 완성도를 이뤘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기도 했다. 니콘프레시션코리아사옥은 설계자의 재주가 엿보이는 작품으로 평가받았다. 순천향대학교 도서관은 과연 학교도 서관으로 미래지향적인가 하는 점이 본상으로의 선정을 주저하게 만들었다. 주거부문의 신사동 K씨주택은 과감한 시도와 작가의 실험적 능력이 돋보였으나 실용성이 의문시된다는 점에서 입선에 머물렀다. 이밖에 과천의 단독주택인 자하당도 삶의 질을 높인 수작이었다. 결국 주거부문 본상작에는 삼청동주택, 웨스틴조선호텔 H빌라, 분당집합주거를 선정했다. 삼청동주택은 작가의 재주가 반짝이는 수작으로 현대건축과 우리 고유건축과의 조화 측면이나 기능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웨스틴빌라는 좁은 대지 등의 입지조건에도 불구하고 환경친화적인 건축미를 유감없이 발휘, 과장도 허세도 없는 매력을 지닌 집이라는 인상을 풍겼다. 분당집합주거는 밀집된 고급빌라의 범주를 넘어서지 못한 공간배치 등의 문제가 있었으나 삶

- 한창진(심사위원장 / 전 대한건축사협회장, 한정건축 대표)
- 황상모(한양대 겸임교수, LG건설 기술자문)

▷ 전시기간 및 장소

- 기간 : '97. 9. 8(월)~9. 19(금)
- 장소 : 서울시립미술관내 서울 600년 기념관

▷ 수상작 현황(작품명 / 설계자 / 시공자 / 건축주)

- 대통령표창 (주)김태수건축사사무소 김태수
- 대상
 - LG화학 대덕연구소 (주)김태수건축사사무소 김태수 / (주)LG건설 / (주)LG화학
- 본상
 - 삼청동주택 (주)건축사사무소 건축문화 김영섭 / (주)에림건축의장/최희중
 - 분당집합주거 (주)전인건축 안명제 / (주)동서개발 / (주)동서개발

의 질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에서 본상에 올랐다.

비주거부문은 코오롱타워, 분당블루힐백화점, 국민생명연수원이 뽑혔다. 코오롱타워는 첨단 인텔리전트빌딩의 전형적인 건물이면서 구조적으로도 이중유리벽의 선택 등으로 업무공간을 최대한으로 넓힌 작가의 의도나 기량이 돋보이는 수작이었다. 블루힐은 신도시 역세권의 어렵고 까다로운 조건을 특수한 공법으로 해결했다. 주차장과 매장을 바로 연결하고 매장을 나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은 고객들의 편의를 우선시했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국민생명연수원은 대지선정 때부터 설계자와 시공자, 건축주가 같이 협동했다는 측면에서 환경·장소성·삶의 질 등에서 흠집을 데가 없는 걸작으로 뽑혔다. 뒷산을 배경으로 한 건물의 전체적인 조형처리는 설계자의 번뜩이는 재치를 엿보게 했다.

대상은 LG화학 대덕연구소가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5단계 공사 총 6만여평중 2만3천여평의 공간과 일부 연구소, 탁월한 구조구사, 건축을 고려한 평면, 환경과의 조화 등 연구소로서의 기능과 건축미를 유감없이 발휘한 걸작이었다.

권용우

건축물을 평가하는 시각은 비리다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다. 건축가는 건축물의 작품성을 중시할 것이고 건설업 종사자는 사업성을 따질 것이며 행정관은 적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건축물이 공간을 점유하는 실체인 동시에 도시의 내용물을 가능케 하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볼 때 도시지리학도인 필자에게도 건축물은 아주 중요한 연구주제이다. 도시의 건축물은 도시구조 연구의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건축물은 지역성과 시대성을 반영하는 사회적 실체이다. 이러한 인식은 국내외 도시지역을 답사하면서 체험적으로 습득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필자의 시각이다. 예컨대 서베를린의 건축물에는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 상업성이 깃들여 있으나 동베를린의 건축물은 노동의 생산성을 우선시하여 주거지인 「마르잔」과 생산리인이 집단적으로 연계돼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번에 제출된 60여편의 작품은 여러

- 웨스틴 조선후텔H빌라 건축사사무소 다건축 유원재/(주) 디자인 신세계/(주)조선후텔
- 코오롱타워 원정수+(주)간·삼 건축/코오롱건설(주)/(주) 코오롱
- 블루힐 백화점 (주)원도시건축 변용, 김석주/(주)청구/(주) 블루힐백화점
- 국민생명 연수원 (주)김태수건축사사무소 김태수/(주)장학 건설/국민생명보험(주)

- 입선

- 일산주택 종합건축사사무소 기람 이상연 이상연/이정구
- 신사동 K씨주택 (주)인우 건축사사무소 함인선/(주)인우건축
- 반포한신타워아파트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 박홍길, 김종국/한신공영(주)
- 자하당 종합건축사사무소 토우건축 신언학 (주)코아인테리어
- 대우분당빌라 (주)거림 종합건축사사무소 김길수/(주)대우
- 진천배티성당 신세대 종합건축사사무소 조구현/(주)광국건설
- 명휘원 장애자 재활체육센터 (주)건축사사무소 건축문화

김영섭/한울종합건설(주)

- 독도박물관 (주)시·삼건축 유건, 김혜정/삼성물산 건설부문
- 순천향대학교 도서관 이로재 종합건축사사무소 승효상/쌍용건설(주)
- 금정시민도서관 (주)세진설계 종합건축사사무소 박재평/대륙종합건설(주)
- 한순심 산부인과 (주)일건씨앤씨 건축사사무소 최관영, 정동명/(주)삼협특건
- 니콘 프레시전 코리아(주)사옥 (주)희림 종합건축사사무소 이영희, 정영균/흥화공업(주), 한미인테리어
- 삼성자동차 기술연구소 (주)삼우 종합건축사사무소/삼성물산 건설부문
- 이화 삼성교육문화관 (주)정림건축/극동건설(주)
- 한국가스공사사옥 (주)정림건축/극동건설(주)
- 설악워터피아 (주)아키펠 종합건축사사무소/(주)한화건설

- 공로상

- 이동성 주택산업연구원 부원장

가지 생각을 하게 한다. 우선 대상으로 선정된 LG화학 대덕연구소는 기업의 사회적 투자라는 점에서 의미를 두고 싶다. 우리나라도 기량을 마음껏 펼쳐면서 편안하게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훌륭한 연구건축물이 많이 지어져 해외에 있는 우수한 한국 두뇌들을 유치할 수 있었으면 한다.

이동배

건축분야에 주어지는 상 가운데 한국건축문화대상은 건축을 가장 통합적인 시각으로 평가해 수상하려 함에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고 생각된다. 설계자·시공자와 더불어 건축주를 동시에 수상대상으로 삼은 것은 바로 이러한 뜻의 반영일 것이다. 나아가 진정한 의미의 문화적 깊어치를 매김하는 상이 되려면 그 속에서 삶을 연출하는 사용자가 심사위원이면서 아울러 수상자가 되는 새로운 기준이 추가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지구상의 삶이 온통 인공환경으로 압도된 오늘날 개체가 아닌 공동체로서의 인류의 삶을 기리는 건축만이 궁극적 존재의의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럼으로써 창조가 곧 문화유산으로 태어남을 전제하는 새로운 건축문화 풍토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운영위원회가 시민단체의 대표자를 심사위원단에 초청토록 한것은 환영받을 결정이었다고 생각된다. 두해 전 심사 때에 비해 많은 수상작품들이 명쾌한 개념정리로 이지적 형태와 합리적 기능을 엮어 완결을 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내적 충실에 진실 보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어 기뻐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큰 의미의 문화적 지향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아쉬움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다.

황상모

설계도서가 완성되고 시공자가 결정되면 시공자는 건축주와 설계자가 의도하고 희망하는 건축물을 만들기 위한 생산계획에 의한 시공 계획을 작성하게 된다. 또 시공자는 자재를 선정·조달하고 철저한 품질관리는 물론 완성후 건물의 유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 따라서 우수작품상을 받은 건물은 그 건물이 존재하고 있는 한 지속적으로 기능 및 건축미에 전혀 손색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설계의 창조적 예

술성·상징성·기능성도 중요하지만 시공의 품질 확보와 유지관리의 안전성 역시 건물의 라이프사이클을 고려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같은 관점에서 준공된 건축물을 심사 평가, 우수작품을 선정하는 한국건축문화대상도 심사 및 선정과정에서 창작 예술성에만 치우치지 않고 시공의 품질과 유지관리의 기능과 안전성까지 확보하고 있는지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명실공히 훌륭한 건축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신망을 받게 되고 그레아만 대상의 가치가 인정되고 계속 보전될 수 있다.

주거용이든 업무용이든 모든 건물은 그것을 이용하는 것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건물과 사람」의 관계는 앞으로 심사과정에서 더욱 비중 있게 다뤄야 할 것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주거용 건물들의 심사다.

박현령

건축문화대상 심사를 끝내고 나서 자신도 모르는 어떤 충족감에 빠졌다. 평소 필자의 전공인 글쓰기를 다하고 닳을 때와 같은 충족감과 기쁨이 트이는 듯한 상쾌함이 밀려들었다. 인간이면 누구나 건축물, 특히 집에 대해 관심과 애착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자신의 몸을 담고 있거나 자신이 드나드는 곳이 아닐지라도 누구나 건축물에 대한 관심은 지대하다. 그런 면에서 건축물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면서도 동시에 현실을 뛰어넘는 무한의 상상력과 창조력 속에서 태어난다. 그러므로 분명히 예술 작품일 것이고 그것도 모든 예술작품 중에서 인간과 가장 밀접하고 행복한 예술작품이라고 말하고 싶다.

일찍이 어떤 이는 「건축물은 생물이니」라고 말했을 정도로 한 개의 건축물은 그 완성의 선상에서부터 생명을 부여받아 펄펄 살아나는 것임을 필자도 이번엔 실감했다. 자신의 능력으로 도저히 꿈도 꿀 수 없는 수준의 건축물들도 때로 상상해서 지어보고 훑어보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습성이리면 그런면에서 건축이라는 예술은 가장 사랑받을 예술이랄 수 있다. 예컨대 왜 우리는 멋진 공간, 질지는 건축물 속에 들어가면 마치 자기 가 멋지고 잘 생긴듯한 자기암시에 빠지지 않는가.

■ 개요

▷ 주제 : 도시의 여백 / 채워 넣기로 이루어진 오늘의 도시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며 그리고 우리의 몫은 무엇인가? 비집고 들어서서 그조차 가득채우기가 능사인 우리의 모습을 이제 비워내기로 바꾸자. 한 뼘 바다, 한 움큼의 공간이라도 소중히 다루어 공간, 그 비어 있는곳이 여백일 수 있게 하자. 건축과 도시의 제 모습을 회복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여백의 빈 곳에 초점을 모은다.

▷ 작품접수현황 : 303점(마감 : 9. 3, 심사 : 9. 4)

▷ 심사위원(가나다 순)

- 강철구(동우건축)
- 김광현(서울대 건축공학과 교수)
- 김영섭(건축사사무소 건축문화)
- 김인철(건축사사무소 아arki움)
- 유원재(건축사사무소 다건축)

■ 심사평

윤석우(총평, 심사위원장)

올해 한국건축문화대상의 계획건축물부문은 「도시의 여백」을 주제로 했다. 실제 대지를 임의 선정해 설계토록 했다. 응모자들이 그들의 생각을 마음껏 펼 수 있는 융통성을 충분히 부여해 가능한 한 제한요건을 없애도록 했다. 모작들은 도시에서 우리가 실제로 안고있는 많은 문제들을 노출시키고 그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또 시사내용을 지남해와 달리한 때문인지, 아니면 응모자들의 열성때문인지 이 상이 시행된 이래 가장 많은 3백3점이 응모했다.

「도시의 여백」은 가득 채워진 오늘날의 도시에서 어떻게 하면 비워내기로 바꾸어질 지, 단 한치의 공간이라도 소중히 다루어 도시의 참모습이 찾아질지, 그래서 도시의 위기에서 탈출할 지를 모색하고자 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주제를 어느 방향으로 해결하고 어떻게 실현했는가에 심사의 주안점을 두었다. 작품들의 수준은 전체적으로 많이 향상됐다고 본다. 특히 기성건축가의 솜씨같은 작품들도 많이 눈에 띄었다. 주택지 재개발, 지하철역 개조, 자투리땅 이용, 하천부지의 이용, 골목길의 개조 등 여러 상황을 작은 테마로 해 구체적인 인들을 제시했다. 공간활용, 조형성 등을 상당한 수준으로 하나하나 해결한 작품들이 많은 것은 우리가 얼마나 도시생활에 찌들어 있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숨쉬는 도시, 여유로운 도시를 갈망하는 욕구가 분출되는 모습이 눈에 선하게 보이는 것 같았다. 다만 조형이나 테마, 대지선정 등에서 너무 입상을 겨냥한 즉, 과거의 입상작품들의 성격이나 심사위원들의 성향 등을 의식한 작품들이 많았다. 이는 순수성 결여로 아쉬운 점이라 하겠다. 입상작들은 여

- 윤석우(심사위원장 / 종합건축 건축사사무소)

▷ 전시시간 및 장소(준공부문과 동일)

▷ 수상작 현황

- 금상 : 空 김연주, 박창준(건축사사무소 세창, 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
- 은상
 - Divided Elevation 백종태, 이승곤(송실대 대학원 건축과)
 - 투명성 류상보, 채호경(서울시립대 대학원, 서울시립대 건축과)
- 동상
 - A Prototype for the Space in Between 천경환(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
 - 묻혀진 여백 임규태, 류정민(동의대학교 건축과)
 - 경계의 여백 문정석, 명영은(중앙대학교 건축공학과)
 - 철길 그리고 삶 이형석, 임채찬(부경대학교 건축공학과)
 - Deviation machine 정태종, 이강훈(홍익대학교 건축과)
- 입선
 - An Urban Place 홍유표, 최진석((주)유림건축)

러가지 경우를 다루고 제안하고 있다.

금상 수상작인 「空」은 집을 땅 밑으로 넣어 도심 3세대의 주거 계획으로 주택밀집지역에 여백을 제공함으로써 이웃에 기여하고, 또 자신도 만족한 작고 소박한 공간을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많은 호감을 얻었다. 주택도 채坪이나 기능상 아무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은상 수상작 중 하나는 철도변을 개발해 거리와 철도간에 긴밀한 관계를 만들어 공간적 대립을 하되 사람들의 의식에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매체가 되도록 한다는 뜻이다. 건축적인 완성도가 상당한 수준이었다. 또 하나의 은상 수상작은 기성 건축가들에게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물리적으로 구성되는 여백뿐 아니라 시각적인 여백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안한 것이다. 도시가 보여주는 시각적 장애물들을 고발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해결방법의 한 예를 제시한 작품이었다.

우리는 도시생활에 너무 찌들어 있다. 생활자체도 그러할 것이다. 이들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한 제안들이 작품들 속에 알알이 박혀 있다. 입상작들 뿐만 아니라 모든 출품작에 잘 담겨 있다. 이러한 것들이 한국건축문화대상이 거둔 성과들이고 앞으로도 해야 할 일들이다. 주최 측에 성원을 보내며 우리 건축문화의 밝은 앞날을 기대한다.

김인철

주제로 주어진 「도시의 여백」은 이 시대의 도시를 되돌아켜 보아 양적팽창으로 치달은 결과로부터 숨쉬 수 있는 여유, 공간을 회복하는 방법을 묻는 것이었다.

입선을 비롯한 입상작들은 다양한 각도로 오늘의 도시를 파악

- 도원 박건섭, 박양자(수원대학교 건축공학과)
- 엘름 김배원, 우광현(서울시립대 건축공학과)
- On and Off 차홍석, 김선태(종합건축사사무소 인우, 중앙대학교 건축공학과)
- 도시에서 임윤규, 김승수(조선대학교 건축공학과)
- 시각예술센터 국병일, 김용만(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
- 마당갤러리 윤호진, 유병민(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
- 도심 폐연탄공장 재활용 배관유, 정수철(동아대학교 건축공학과)
- 관계 유범석, 이훈길(숭실대학교 건축과)
- 도시, 마을, 가정의 여백 최성만, 한승이(동의대학교 건축공학과)
- 부산다시보기 최연승, 김광진(동의대학교 건축공학과)
- 밀집주거지역을 위한 문화공간 김상엽, 유종태(경북대학교 건축공학과)
- 3m의 의미를 찾아서 김광일(충북대학교 건축학과)
- 보이드 코어 권영석, 고희권(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 정림건축)
- Urban Pocket 정원재(금오공과대학교 건축공학과)
- 도시위에 세운 허수아비 하인철, 이정완((주)종합건축사사

- 무소 당중합, 건축대학교 건축공학과)
- Silence & Vertical 송기훈(명지대학교 건축공학과)
- 틈 양승진, 신승호(중앙대학교 건축공학과)
- 근원 배은숙, 송형규(동의대학교 건축과 신도시 설계감리(주))
- 채움 민형준, 정길수 ((주)내외 종합건축사사무소, 홍익대학교 건축과)
- 한옥 Renovation 김지원, 김지수(서울시립대 건축공학과)
- 서지학사 권성근, 김태우(인하대학교 건축과, 향·도시건축사무소)
- 진상의 도시 강기진(금오공대)
- 발상전환사이의 지하철역 출입구 Renovation 정재용(서울시립대 건축공학과)
- 느낌 정성용, 박재우(숭실대학교 건축공학과)
- 가능성? 홍승모
- Omnibus Scrap 정상철, 양병일(동국대 건축공학과 대학원, 동국대학교 건축공학과)
- Flow The Stay 선상희, 손형욱(동국대학교 건축공학과)

하고 분석하여 나름대로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도시적 욕망으로 이뤄진 포이동풍경에서 집과 집 사이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려는 「A Prototype For The Space In Between」, 국제시장의 혼란을 새로운 상황으로 재구성한 「물허진 여백」, 보호의 기능을 다하고 이제는 장벽이 되어버린 창신동 성곽을 새롭게 열어보려는 「경계의 여백」, 같은 의미에서 도시시설의 기능을 다한 철도와 그 주변을 기억의 장치로 환원시키려 한 「철길 그리고 삶」, 전형적인 모더니즘, 교보빌딩의 맛맛함에 파격의 실마리를 부과하려는 「Deviation Machine」등은 도시의 건축에 대한 접근방식이 흥미롭고 다양했다.

그중에서도 상황설정의 타당성과 작품의 완성도에서 높이 평가된 것이 철로변의 버려진 환경을 활기 넘치는 투명한 공간으로 재생시킨 「Transparency」와 서울역앞 D빌딩의 무모한 덩어리에 과감히 여백을 만들려고 한 「Divided Elevation」이었다. 특히 「Divided Elevation」은 누구라도 생각했을법한 착상이었지만 그것에 집착해 대안을 제시한 컬럼버스적인 착상이 높이 평가돼 마지막까지 금상의 경쟁작이 됐다. 개발위주의 도시 만들기에 일침을 놓은 아이디어였다.

도시의 주택 만들기로서 땅위를 열어 두고 땅 아래에 3대를 위한 주거를 계획한 「窠」으로 금상이 결정된 것은 도시의 기본단위인 주거공간에 주목한 점과 어디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보편성, 과다하게 꾸며지는 공간의 낭비를 절제로 풀어나간 단순 명료함이 호감을 갖게 했기 때문이다. 오늘의 이곳에서 그같은 발상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는 것은 도시문화를 일으키는 건축 하나 하나를 어떻게 다룰것인가를 묻는 시점에 우리가 와 있기 때문이다. 빈 곳은 무작정 가득 채우고 채워진 틈에 기능

만 주어지면 그만이었던 것이 이제까지의 관행이었다. 이제 새로운 계기를 모색하는 전환기를 앞서서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건축과 도시는 미래를 잃고 말 것이기에 입상자를 비롯한 참여자 모두의 가능성에 무한한 기대를 건다.

강철구

전반적인 인상은 상당한 현실 감각에 충실한 작품이었다는 것이다. 거의 모든 작품은 주제를 잘 파악하여 도시에서의 빈 곳을 만들기 위해 애쓴 흔적이 보인다.

막연한 소재와 분명하지 못한 표현보다는 구체적인 소재선택과 뚜렷한 주제의식으로 깔끔하고도 잘 정리된 작품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은상을 받은 대우빌딩 입면개선안은 그 건물 건축주로 하여금 그 건물에 대하여 다시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언제나 서울역 앞을 지날때 도시에서의 막힌공간의 대표로서 무엇인가 손을 대야 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었다.

금상은 잘 정리된 표현으로 주제에 꼭 맞는 소재를 적절히 활용했다고 본다. 또다른 은상의 철로역 근생시설은 몇년전부터 똑같은 수법으로 했다는 것에 거부감이 있으나 나름대로의 완성도는 아주 훌륭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부탁은 자유분방한 사고를 어떻게 작은 패널과 모형에 잘 정리해서 그 의사를 전달시킬것인가에 힘을 쏟아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또 오랫동안의 명상과 고민은 훌륭한 작품의 모체가 되는 것은 틀림없는 일일것이다.